

이 책의 특징 및 효과적 이용법

이 책은 읽기 훈련서입니다. 수능 출제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읽으면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출제의 핵심이 독해 능력 측정이니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배웠어야 할 비문학 독해 훈련을 수능 시험에 적용해 본 것이 이 책입니다.

수능 국어 시험공부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여 맞고 틀리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글을 바르게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제시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글을 제대로 읽는 훈련은 대학 1학년에 가서야 배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문제풀이만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원칙에서 국어 영역은 독해력을 측정한다고 천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시중에 읽기 훈련을 통해 수능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는 교재는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데 왜 독해력을 높여 주는 수능 교재가 없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독해력이 절실한 시기는 학부 1학년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할 고3 때인데 말입니다. 수능 수험생 포털 사이트인 ‘수만휘’와 ‘오르비’에 올라오는 국어 공부를 위한 조언을 종합해 보면,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냐는 거였습니다.

이런 글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이들 글에 답을 해 주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게 날아오는 쪽지도 많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책이 없으니 ‘내가 한 번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문제의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토록 원하던 비문학에 대한 독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문제풀이 해설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하루 2시간 정도 할애하면 2달이면 충분히 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의 총론 부분인 ‘읽기의 이론’ 부분(제1장)을 숙독한 다음 비문학의 7유형의 이론 부분을 먼저 봅니다. 이 책은 비문학에서 출제되는 제시문의 유형을 7가지로 세분하여 각각 이론 부분과 기출 훈련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훈련 문제를 건너뛰고 유형을 설명한 부분을 예제와 함께 먼저 보라는 겁니다. 7가지 유형의 이론을 기본예제와 함께 숙독한 후에, 기출 훈련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순서대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만 저는 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출 훈련 연습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출된 문제를 풉니다. 실전과 같이 시간 내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문 분석표에 따라 표를 채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단락의 내용 정리입니다.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았으면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여 명제 형식(‘OO는 OO다.’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표를 채

운 후에는 내용 확인 문제를 풉니다. 주관식과 ○×문제로 이루어진 6~8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여러분은 제시문을 좀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출제된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루어 봄으로써 제시문을 다각도로 읽는 연습을 하는 코너입니다. 밑에 있는 답을 종이로 가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 해설을 통해 각 문항의 출제 포인트와 각 선택지가 본문의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맞고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답을 찾았고, 오답을 골라냈는지 그 과정을 해설과 비교하여 교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턱턱잡고 2달이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책을 다 보면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10년 치 수능 기출 문제면 충분합니다. EBS 교재는 부차적으로 활용하시고, 언제나 첫 번째 기본서는 기출문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